

신안 '명품' 천일염 28일 올 첫 생산

증도 태평염전서 채염식... 대동염전은 29일 근로자 인권유린 추방 등 자정 결의대회도

신안군 천일염 업자들이 지난 2월 불거진 염전 근로자 인권유린 문제를 딛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명품 천일염 생산에 나선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첫 소금을 생산하는 채염식(採鹽式)이 유관기관 단체와 천일염생산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증도 태평염전, 29일 비금면 대동염전, 4월 15일 신의도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채염식은 그동안 폐쇄되고 최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천일염 풍

년 기원제와 염전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 천일염 생산 결의문 낭독, 농약 놀이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들은 친환경 천일염 생산과 명품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생산 개시일(3월 28일)과 종료일(10월 15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15도보다 낮은 시기에 소금을 생산하면 소금이 작고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아 품질저하와 가격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천일염은 바닷물·온도·바람·햇빛 등



지난해 채염식 장면 (자료사진)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밤과 낮의 평균 기온 차가 15도 이상이 돼야 품질이 좋다.

이와 함께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은 25일 압해읍 신안 군민체육관에서 생산자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자정대회는 천일염 생산개시일을 앞두고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실추된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을 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아끼며 사랑하겠다. 명품 천일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생산자연합회 박형기 회장은 "모든 생산자들이 네 탓이라고 하는 순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피땀으로 가꿔 온 천일염의 명성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천일염의 독과점적인 지위는 물론 존립기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4218ha 염전에서 2083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28만9520t을 생산해 869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땅끝해남 식품단지 입주희망자 설명회

해남군이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주희망자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입주사를 밝혀왔거나 상담을 했던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 목적과 입지여건, 분양공고(안), 산업시설 건축물의 색채 등을 설명하고, 분양공고시 입주희망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분양공고는 오는 7월중 있을 예정이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마산면 상동리에 조성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제조산업 농공단지로, 21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강구하라"

해남농민회 소속 농업인 200여명이 25일 해남군청앞 광장에서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추구를 위한 농민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파와 감자 등 농산물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정읍시립 미술관 내년 10월 개관

19억 들여 옛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정읍시립 미술관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정읍시는 "정읍 시립도서관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옛 시립도서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옛 시립도서관(연면적 1631㎡, 지상 2층·지하 1층)에 전시실 3개와 체험 및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되며, 관람객 확보와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광복) 4억8000만원을 포함해 12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 국비(광복) 2억8000

만원 등 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정읍시 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주변을 시민을 위한 휴식 및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일반미술관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물론 특별·기획전시회를 통한 특색 있는 작품 전시공간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요전 생태습지공원 공정률 60% '순조'

남원시가 오는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요전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60%.

시는 현재 부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생태습지와 다목적 운동마당, 생태 탐방로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생태공간,

관찰데크 등 마무리 공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요전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은 주성면 중동리 매립장 부지 7만㎡와 농지 7만㎡를 포함한 총 14만㎡ 부지에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생태습지·생태체험원 등의 친수공간과 생활체육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군 흥덕면 석우마을 들녘에서 노부부가 복분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복분자는 봄을 앞두고 새순이 돋기 전에 가지치기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전북

순창, 오래 묵은 장 브랜드화 추진

집안 대대로 이어온 장류 전수 조사·기능성 평가

"오래 묵은 장(醬)맛은 어떻게 다를까?"

순창군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추장·된장·간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순창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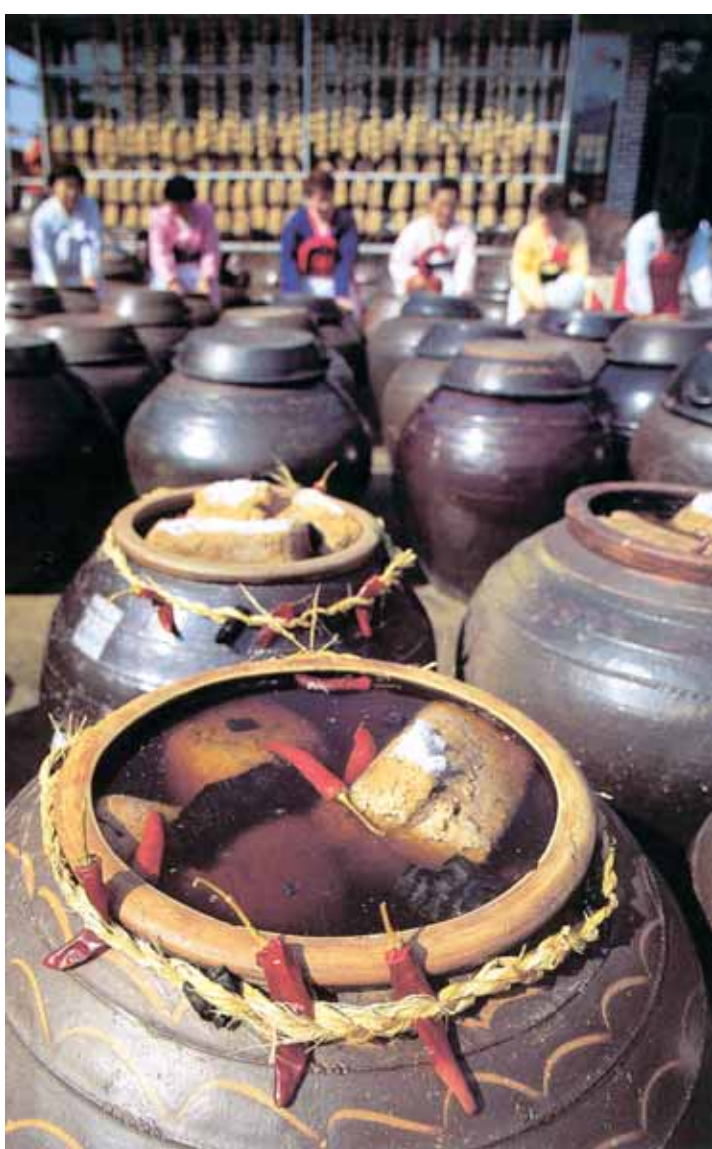
순창군 장류사업소는 관내 기업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대를 이어온 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원하는 군민은 28일까지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52)에 신청하면 된다.

군 장류사업소가 그동안 오래 묵힌 장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맛의 영향을 주는 '유리 아미노산', 총 질소, 구수한 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햇간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기 성분 분석에서는 초기에 30여 종에서 해가 지날수록 50여 종으로 늘어나며, 오래 묵힌 간장일수록 장미향을 나타내는 '페닐 에틸알코올' 생성 등 다양한 향기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집집이 대를 이어온 고추장, 된장, 간장의 전수조사와 기능성 평가를 통해 오래 묵힌 장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군은 토굴형 저장고 건립과 연계시켜 오래 묵힌 장의 기능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 장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해



다 상품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군 장류사업소 관계자는 "묵힌 장은 오래 묵힌 만큼 관능적인 기호도는 떨어지지만 기능성 향상효과 등이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다"며 "오래 묵힌 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능성을 입증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저소득 경제적 자립 지원해 드려요"

목포 '희망리본사업'

목포시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희망리본(re-born) 사업'을 벌인다.

시는 최근 전남 희망리본 본부 목포센터에서 동 주민센터 자활담당과 통합 조사 관리팀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희망리본 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과 연계한 성과 중심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 사례관리

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교육·의료·채무 등의 근로 장요인을 없애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을 제공한다.

또 참여자에게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며,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해준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안에서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 참여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만 18~64세의 근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등이고, 55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전남 여성 취업박람회 내일 목포서 열린다

9개 시·군 1500명 참여

'2014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27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도전하는 여성, 내일의 희망'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는 여성들의 취업·창업 상담, 채용 정보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고, 전남도·목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목포를 비롯한 강진, 장흥, 해남, 무안, 신안 등 서부권 9개 시·군에서 1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 225개 업체가 523명을 채용 목표로 두고 참여한다. 이 가운데 33개 업체는 직접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고, 나머지 192개 업체는 접수후에 나중에 면접 가능하다.

행사장은 33개 업체별로 현장면접 가능한 채용관, 창업 품목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관, 협동조합 컨설팅 및 성공전략을 담은 협동조합지원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난해 전남 여성취업·창업 박람회는 2658명이 면접해 714명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줬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단신

전주시, 월1회 시민 자전거 대행진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상임의장 최상진)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차례 시민 자전거 대행진을 연다.

3월 대행진은 29일 오후 3시 시청 노송 광장앞에서 자전거타기 발대식을 가진 후 노송광장을 출발해 한벽

교 삼거리 ~ 전주천 서로 ~ 터미널사거리 ~ 금암광장 ~ 기린대로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10km 구간에서 진행된다.

4월 행사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시민대학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공원 인근 주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기초과정(12강좌)과 심화과정(10강좌)로 나눠 진행되는 시민대학은 내장산의 생태와 문화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립공원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윤석 소장은 "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립공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민관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63-538-7875)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보건소, 노인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 자살예방센터는 27일 시 노인복지관에서 동년배 상담 및 목거노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지킴이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

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자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자살시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노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킴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3-620-7973)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 국·지방도 10곳 18km 가로수 식재

고창군은 올 상반기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관내 국·지방도 10개소 18km 구간에 소나무와 배롱나무 등 다양한 가로수를 심어 특색 있는 명품 길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 연말 개통된 아산면 대동리 교차로 1.6km 소나무 160주를 식재한데 이어 오는 5월까지 무장·

공음·상하·대산·흥덕·부안면 등 16.4km에 배롱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군은 2010년부터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고창IC 진입로 등 총 15km 소나무 679주를 심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